

일본 도가쿠의 중국 당악 수용 사례 연구: <교운라쿠> · <바토> · <간슈>의 문화변용을 중심으로*

박태규** 남종진***

목 차	
I. 머리말	1. <경운악(景雲樂)>과 <교운라쿠(慶雲樂)>
II. 역사기록으로 본 일본의 건당사와 당악의 수용	2. <발두(撥頭)>와 <바토(拔頭)>
III. 당악(唐樂)에서 도가쿠(唐樂)로의 문화변용 양상	3. <감주(甘州)>와 <간슈(涇州)>
	IV. 맺음말

| 논문요약 |

본고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전파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화변용의 한 사례로, 중국의 당악(唐樂)이 일본에 전해져 도가쿠(唐樂)로 정착한 양상을 살폈다. 8세기 무렵,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활발한 국제 문화 교류가 있었고, 그 결과 ‘당악’과 ‘도가쿠’라는 쌍둥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래와 수용의 과정에서 굴절이 있었고 나아가 문화적 변용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운악(景雲樂)>, <발두(撥頭)>, <감주(甘州)>가 일본에서 <교운라쿠(慶雲樂)>, <바토(拔頭)>, <간슈(涇州)>로 정착한 자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운악>은 본래 춤을 동반한 악무였으나 일본의 <교운라쿠>는 춤이 없는 기악곡으로 변모하였다. 둘째, 서역(西域)에서 전래한 스토리를 소재로 삼아 만든 악곡인 중국의 <발두>는 일본의 <바토>에서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11-413-G00018).

**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상임연구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전임연구원.

도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중국의 <감주>는 악곡명 이외에는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아서 춤의 자세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일본에서 전승되는 <간슈>는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 정착되었다.

▪ 주제어: 문화변용, 당악(도가쿠), 경운악(교운라쿠), 발두(바토), 감주(간슈)

I. 머리말

고대 동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은 하나의 벨트로 이어진 문화권역이었다. 이들 세 나라는 하나의 문화벨트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접촉하고 모방하고 수용하였으며, 또 그렇게 수용한 문화를 변용하여 자기만의 특색을 가진 새로운 문화형태를 만들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중국·일본은 과거 오랫동안 문화의 여러 방면에 있어서 공통의 분모를 가지면서도 또한 사뭇 독자적인 문화 색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예컨대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중국 당악(唐樂)의 일본 전래, 즉 일본의 도가쿠(唐樂) 수용은 서로 ‘닮았으면서도 다른’ 문화변용(culture transformation)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된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부터 텐산(天山)산맥을 넘어 중국·한반도·일본으로 이어진 실크로드를 통하여 동서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던 시절에 당(唐)나라의 도성 장안(長安)은 서역(西域)의 문화와 문물이 모두 모여드는 곳이었다. 당시 대당제국(大唐帝國)은 아주 멀리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는데, 서쪽으로는 아랄해,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일대, 동쪽으로는 일본까지 영향력이 미쳤다(가와타케 시게토시 2001, 97). 당시 악무(樂舞) 문화의 사정을 살펴보면, 당나라 때에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들어온 서역의 여러 가지 악무와 한반도 등지에서 유입된 악무를 두루 모아 수(隋)나라의 칠부기(七部伎)와 구부기(九部伎)에 이어 십부기(十部伎)를 완성하였는데, 당시 이들 악무는 선진문물의 표상이었다. 때문에 주변국가에서는 당악을 수입하거나 수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일본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악(三國樂), 발해의 발해악(渤海樂)¹⁾과 함께 당악을 적극적으로

으로 받아들였다.²⁾

일본의 부가쿠(舞樂)는 좌무(左舞)인 도가쿠(唐樂)와 우무(右舞)인 고마가쿠(高麗樂)로 구성된다. 도가쿠는 중국에서 전래한 당악을 이르는데, 여기에는 중국계 악무 이외에도 임읍(林邑)³⁾의 린유가쿠를 비롯한 남방 실크로드 계열의 악무가 포함된다. 고마가쿠는 삼국악에 발해악을 더한 것이다. 예로부터 부가쿠는 좌무와 우무의 양무(兩舞) 시스템을 운용한 번무(番舞)의 형식으로 행해졌으며, 이런 방식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궁중악무인 부가쿠의 한 축을 이루는 도가쿠는 그 비중과 의미가 매우 크다.

일본의 부가쿠 가운데 지금까지 악곡의 이름이 전하는 도가쿠는 100개가 넘는다. 하지만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들 악곡 가운데 중국의 문헌에 기록이 전하는 것은 30여 개 악곡이다. 그 가운데서도 문화변용의 양상이 두드러진 것은 <교운라쿠(慶雲樂)>와 연관된 <경운악(景雲樂)>, <바토(拔頭)>와 연관된 <발두(撥頭)>, <간슈(涪州)>와 연관된 <감주(甘州)>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이들 악곡이 지금도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어서 그 양상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경운악>, <발두>, <감주> 등 중국의 세 악곡이 일본에 전해져 <교운라쿠>, <바토>, <간슈>로 변용되는 자세한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제껏 중국문화의 일본 전파와 수용에 대해서는 중국·일본·한국에서 모두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도가쿠의 세부 악곡이 유입되고 변용된 양상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⁴⁾ 따라서 이것은 과거 하나

1) 일본의 발해악에 대해서는 박태규(2012, 183-212)의 논문을 참조함.

2) 동아시아 한·중·일의 악무 전파에 대해서는 이동복(2010, 127-147)의 논문에서 국가별로 개괄하였다.

3) 임읍(林邑)은 베트남 중부 지방에 있던 나라 이름으로, 당나라 때에는 임읍, 송나라 때에는 점성(占城)이라고 불렸다. 중국의 정사(正史)인 『진서(晉書)』, 『송서(宋書)』, 『수서(隋書)』, 『당서(唐書)』 등의 남만전(南蠻傳)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참파(Champa). 상림지읍(象林之邑).

4) 중국 당악의 일본 전래에 관한 것으로는 서정록(2009, 193-227)의 논문이 있다. 서정록은 중국의 <난릉왕(蘭陵王)>은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하여, 중국의 당악이 일본으로 직접 전해졌다는 기존설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 당악의 일본 전래 경로를 살핀

의 문화벨트로 연계되었던 중국·한국·일본의 문화지형을 살피고 아울러 이 문화권역에서의 국제적 문화 전파·수용·변용의 양상을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역사기록으로 본 일본의 건당사와 당악의 수용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일본의 궁중악무 부가쿠가 언제 처음 형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고대 한반도에서 악공(樂工)과 악기가 일본으로 전해진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554년에 백제의 악공이 일본에 건너가 앞서 근무하던 사람들과 임무를 교대하였다는 기록이 일본의 역사서에 나온다.⁵⁾ 따라서 늦어도 6세기 이후로는 외국의 악무가 본격적으로 일본에 전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실상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일본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였다. 일본은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와 외래인의 활동에 기대어 고대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이카노 카이신(大化改新)을 통하여 중앙집권을 이룩하기 이전까지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호족 세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율령국가로서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⁶⁾ 문화적 수준 또한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바로 선진문물을 선점하는 것이었다. 선진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여 활용하는 것은 강력한 호족의 세력을 누르고 백성들을 장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것이어서, 그것의 변용 양상을 고찰하려는 본고와는 관점이 다르다.

5)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15年: “百濟遣 …… 樂人施德三斤 季德己麻次 季德 進奴 對德進陀 皆依請代之.”

6) 동아시아의 정치적 지형 변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토쿠 천황(孝德天皇)의 황태자 나카노오에가 실권을 장악하고 646년에 정치경제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 개혁으로 호족 중심의 정치시스템이 천황 중심의 정치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본의 외래문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 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한반도의 삼국과 수나라·당나라를 상대로 하여 펼친 일본의 외교활동이다. 역사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600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견수사(遣隋使)를 파견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에 기록한 것이 서로 연대가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수서(隋書)』와 일본의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견수사에 관련된 기록이 각각 세 차례씩 나온다.

일본 측의 기록에 따르면, 두 번째로 견수사를 파견한 것은 607년에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수나라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귀국할 때, 일본에서는 유학생과 유학승 8명을 수나라 사절단에 딸려 보냈다. 수나라로 건너간 유학생과 유학승은 수나라의 선진문물을 처음으로 일본에 전한 주체였다. 당시 상황을 『일본서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스이고 천황(推古天皇) 16년(608년) 9월 신사일(11일). 당나라 사신 배세청(裴世清)이 일을 끝내고 귀국하였다. …… 당시 당나라에 파견한 학생은 아마토노아야노야 타이후쿠인(倭漢直福因), 나라 노오사 에묘(奈羅譯語惠明), 다카무쿠노아야 히토겐리(高向漢人玄理), 이나키노아야 히토오쿠니(新漢人大國)이고, 학문승은 이마키노아야 히토이치몬(新漢人日文), 미나미부치노아야 히토쇼안(南淵漢人請安), 시가노아야 히토에온(志賀漢人惠隱), 이마키노아야 히토고사이(新漢人廣齊) 등 모두 8명이었다.⁷⁾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자 일본에서는 견당사(遣唐使)를 파견하였다. 최초의 견당사는 630년에 파견하였는데, 당시는 조메이 천황(舒明天皇, 629-641)이 재위하고 있었다. 견당사는 894년에 파견을 폐지하기까지 약 20회에 걸쳐 파견되었다.⁸⁾ 중국의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

7) 『日本書紀』 推古天皇 16年 9月: “辛巳. 唐客裴世清罷歸. …… 是時, 遣於唐國學生倭漢直福因·奈羅譯語惠明·高向漢人玄理·新漢人大國, 學問僧·新漢人日文·南淵漢人請安·志賀漢人惠隱·新漢人廣齊等并八人也.”

8) 견당사를 파견한 횟수에 대해서는 18회, 19회, 20회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차이는 견당사로 임명되었다가 취소되었거나 당나라로 건너가다가 돌아온 사절단까지 포함하느냐의 여부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당나라에 건

『新唐書』에는 일본의 견당사 파견과 관련한 기록이 각각 6회와 10회가 나온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사절단의 규모, 선박의 수, 자세한 시간,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개괄적 상황을 스케치한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일본 자료에 기록된 653년, 665년, 759년의 세 차례에 걸친 견당사 파견에 관한 사실은 중국 자료에는 아예 기록이 없다. 반면 중국 역사서의 기록과 비교하여 일본 역사서의 기록은 한층 상세하다. 일본의 기록에서는 인명, 직책, 선박의 수, 항해로, 중도의 상황, 귀로(歸路) 등을 살필 수 있다. 혹자는 이런 차이는 당시 일본의 통치 계층이 당나라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려고 애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일본의 기록은 중국 기록의 미비를 메워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陳璠 2007, 11).

한편 702년에 있었던 견당사 파견을 비롯한 일부 기록에서는 견당사로 파견된 사람의 이름을 비롯하여 일본의 당나라 문화 수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자료에서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당서』의 일본 견당사 파견 기록

연 도	출 전	기 사 내 용
702년 장안(長安) 2년 다이호(大寶) 2년	『신당서』 「동이전」	* 장안 원년에 <일본의> 문무(文武) 국왕이 즉위하여 연호를 태보(太寶)로 바꾸고 아소미 아와타 노마히토(朝臣栗田真人)를 파견하여 방물(方物)을 진공(進貢)하였다. …… 무후(武侯)는 인덕전(麟德殿)에서 연회를 베풀고 사선경(司膳卿)의 벼슬을 주어 돌려보냈다. ⁹⁾
717년 3월 개원(開元) 5년 요로(養老) 1년	『구당서』 「동이전」	* 개원 초년에 다시 사절을 파견하여 와서 조회하고, 유학자에게 경전을 전수받기를 청하였다. …… <그들 가운데> 편사조신(偏使朝臣) 존만(仲滿)은 중국의 기풍을 흠모하여 떠나지 않고 머물렀는데, 이름을 조고(朝衡)라고 바꾸고, 벼슬하여 좌보궐(左補闕)과 의왕우(儀王友)를 지냈다. 조형은 도성에서 50년 동안 머물렀는데, 책을 좋아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황제의 명에도 머물며 떠나

년간 것은 모두 15회이다. 여기에는 일본에 온 당나라 사절단을 송환하는 임무를 맡은 송당객사(送唐客使)가 2회, 견당사를 영접하기 위한 영입당대사(迎入唐大使)가 1회 포함된다. 따라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순수한 견당사는 12회이다(이병로 2003, 481).

		지 않았다. ¹⁰⁾
780년 6월 건중(建中) 1년 호키(寶龜) 8년	『신당서』 「동이전」	* 건중 원년에 사자 마히코 흥능(真人興能)이 방물(方物)을 바쳤다. 진인은 벼슬로 씨(氏)를 삼은 것이다. 흥능은 서예가 뛰어났는데, 그가 사용하는 종이는 마치 누에고치 처럼 윤기가 흘렀는데 <어떤 종이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¹¹⁾
804년 7월 정원(貞元) 20년 엔라쿠(延曆) 23년	『구당서』 「동이전」	* 정원 20년 12월에 토번(吐蕃)·남조(南詔)·일본국이 함께 사절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¹²⁾ * 원화 원년에 일본국의 대사(大使) 판관(判官) 다카시나 마히토(高階真人)가 상소하기를 “지난 번 학생들이 예업(藝業)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본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희망하니 신과 함께 돌아가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게 하였다. ¹³⁾

702년 기사에 나오는 아소미 아와타 노마히토(朝臣栗田真人)는 나라(奈良) 시대의 귀족으로 653년에 유학생으로 당나라에 처음 건너갔으며, 701년에는 대사(大使)보다도 상위인 견당집절사(遣唐執節使)에 임명되어 다시 당나라 땅을 밟았다. 당나라에서 돌아와 719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관료로 활약하였는데, 특히 입당(入唐) 경험을 살려 게이운(慶雲) 3년(706년)에 있었던 게이운개혁(慶雲改革) 때에는 율령체제의 개혁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소미 아와타 노마히토는 바로 아베노 나카마로(阿倍仲麻呂)인데, 그는 견당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당나라에 들어간 인물이다. 아베노나카마로는 『구당서』에 기록된 것처럼, 개원 5년(717년)에 이름을 준만(仲滿)에서 조고

9) 『新唐書』 「東夷傳」: “長安元年, 其王文武立, 改元曰太寶, 遣朝臣真人栗田貢方物. …… 武后宴之麟德殿, 授司膳卿, 還之.”
 10) 『舊唐書』 「東夷傳」: “開元初, 又遣使來朝, 因請儒士授經. …… 其偏使朝臣仲滿, 慕中國之風, 因留不去, 改姓名爲朝衡, 仕歷左補闕·儀王友. 衡留京師五十年, 好書籍, 放歸鄉, 逗留不去.”
 11) 『新唐書』 「東夷傳」: “建中元年, 使者真人興能獻方物. 真人, 蓋因官而氏者也. 興能善書, 其紙似茧而澤, 人莫識.”
 12) 『舊唐書』 「東夷傳」: “貞元二十年, 遣使來朝. 留學生橘免勢·學問僧空海.”
 13) 『舊唐書』 「東夷傳」: “元和元年, 日本國使判官高階真人上言: ‘前件學生, 藝業稍成, 願歸本國便, 請與臣同歸.’ 從之.”

(朝衡)로 바꾸었고,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중국의 과거에 급제하여 당나라의 관료로 일생을 마쳤다.¹⁴⁾

804년의 기사에 나오는 유학생 다치마나노 하야나리(橋逸勢)는 헤이안(平安) 시대의 귀족이면서 서예가로 명성을 떨쳤는데, 당나라에 함께 파견된 구카이(空海), 사가 천황(嵯峨天皇)과 더불어 당대 3대 명필로 꼽혔다. 하야나리는 사이초(最澄), 구카이 등과 함께 당나라에 파견되어 유학하면서 특히 금(琴)과 서예에 큰 관심을 보였다. 훗날 사이초는 일본 천태종(天台宗)의 개산조가 되었고, 구카이는 진언종(眞言宗)의 개산조가 되었다. 구카이는 중국에서 진언밀교(眞言密敎)를 일본에 전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702년의 기사를 보면, 무후(武侯)가 인덕전(麟德殿)에서 연회를 베풀어주고 사선경(司膳卿)의 벼슬을 주어 돌려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인덕전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나오는데, 신라 흥덕왕(興德王) 3년(828년) 12월 기사를 보면, 당나라에 파견한 신라 사신에게 문종이 인덕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⁵⁾ 인덕전은 당시 당나라 도성 장안(長安)의 대명궁(大明宮) 북쪽에 있던 전각으로 각국 사신을 위한 연회가 주로 열린 곳이다. 무후는 태종 이세민의 뒤를 이어 악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창한 인물로, 현종 이윤기의 시대에 이르러 악무가 전성을 구가할 수 있게 연결한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어서, 무후의 시대는 당나라의 문화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기록과 상대하여 일본의 기록은 견당사를 파견하기 시작한 조메이 천황 2년(630년)부터 간표(寬平) 6년(894년)에 견당사 파견이 중지될 때까지, 파견된 인물, 인원, 선박의 수효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서기』에는 하쿠치(白雉) 4년(653년)에 두 번째로 견당사를 파견한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4년 여름 5월 신해삭 임술일에 대당(大唐)에 파견할 대사 쇼센조(小山上)¹⁶⁾ 기시노 나가니(吉士長丹), 부사 쇼오쓰조(小乙上)¹⁷⁾ 기시노

14) 『舊唐書』 「東夷傳」: “其偏使朝臣仲滿, 慕中國之風, 因留不去, 改姓名爲朝衡, 仕歷左補闕儀王友. 衡留京師五十年, 好書籍. 放歸鄉, 逗留不去.”

15) 『三國史記』 「新羅本紀」 興德王 3年 12月: “遣使入唐朝貢, 文宗召對于麟德殿, 宴賜有差.”

고마(吉士駒)(고마의 다른 이름은 糸), 학문승 도젠(道嚴)·도쓰(道通)·도코(道光)·게이시(惠施)·가쿠쇼(覺勝)·벤세이(弁正)·에쇼(惠照)·소닌(僧忍)·도모아키(知聰)·도쇼(道昭)·조에(定惠, 조에는 내대신의 맏아들임)·아다치(安達, 아다치는 中臣渠每連의 아들임)·도간(道觀, 도간은 春日粟田臣百濟의 아들임), 학생 고세노오미쿠스리(巨勢臣藥, 쿠스리는 豊足臣의 아들임)·히노무라지오키나(氷連老人, 오키나는 眞玉의 아들임. 어떤 판본에는 학문승 지벤(知弁)·디토쿠(義德)와 학생 사카히베노무라지이하스키(坂合部連磐積)를 더하였음) 등 121명이 한 배에 탔다. 무로하라오비토미타(室原首御田)를 송사로 삼았다. 또 대사 다이센게(大山下)¹⁸⁾ 다카다노오비토네마로(高田首根麻呂, 다른 이름은 야쓰가하기(八掬脛)임), 부사 쇼오쓰조(小乙上) 가모리노무라지오마로(掃守連小麻呂), 학문승 도후쿠(道福)와 요시히사(義向) 등 120명이 한 배에 탔다. 하지노무라지야쓰데(土師連八手)를 송사(送使)로 삼았다.”¹⁹⁾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견당사 일행의 대사에는 기시노 나가니(吉士長丹)와 다카다 노오비토네마로(高田首根麻呂), 부사에는 기시노 고마(吉士駒)가 각각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도젠(道嚴)을 포함한 여러 명의 학문승과 학생이 함께 파견되었는데, 모두 241명이 두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당나라로 향하였다는 자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견당사를 파견한 사실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다.

“신해일. 입당 유학생 중8위하 하도조신 기비(吉備)가 『당례(唐禮)』

16) 고대 일본의 관위. 19개 관위 중, 13위.

17) 고대 일본의 관위. 19개 관위 중, 17위.

18) 고대 일본의 관위. 19개 관위 중, 12위.

19) 『日本書紀』 白雉 4年 5月 壬戌: “四年夏五月辛亥朔壬戌, 發遣大唐大使小山上吉士長丹, 副使小乙上吉士駒(駒, 更名糸.), 學問僧道嚴·道通·道光·惠施·覺勝·弁正·惠照·僧忍·知聰·道昭·定惠(定惠, 內大臣之長子也.)·安達(安達, 中臣渠每連之子.)·道觀(道觀, 春日粟田臣百濟之子.), 學生巨勢臣藥(藥, 豊足臣之子.)·氷連老人(老人, 眞玉之子. 或本, 以學問僧知弁·義德, 學生坂合部連磐積而增焉.), 并一百二十一人, 俱乘一船. 以室原首御田爲送使, 又大使大山下高田首根麻呂(更名, 八掬脛), 副使小乙上掃守連小麻呂, 學問僧道福·義向, 并一百二十人, 俱乘一船, 以土師連八手爲送使.”

130권, 『대연역경(大衍曆經)』 1권, 『대연역입성(大衍曆立成)』 12권, 측영철척(測影鐵尺)²⁰⁾ 1매, 동율관(銅律管) 1부, 철여방향(鐵如方響)·사율관성(寫律管聲) 12조, 『악서요록(樂書要錄)』 10권, 현전칠각궁(絃纏漆角弓) 1장, 마상음수칠각궁(馬上飲水漆角弓) 1장, 노면칠사절각궁(露面漆四節角弓) 1장, 사갑전(射甲箭) 20척(隻), 평사전(平射箭) 10척을 바쳤다.”²¹⁾

“천황께서 북쪽 송림(松林)에 나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을 관람하였다.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신과 당나라 사람이 당악과 시라기가쿠(新羅樂)를 연주하고 창술(槍術)을 연행하였다.”²²⁾

“8월 경오일. 입당부사 중5위상 나가토미노아소미 나시로(中臣朝臣名代) 등이 당나라 사람 3명과 페르시아[波斯] 사람 1명²³⁾을 이끌고 배조하였다.”²⁴⁾

첫 번째 기사는 『속일본기(續日本記)』의 쇼무 천황(聖武天皇) 덴표(天平) 7년(735년) 4월 신해일의 기사인데, 요로(養老) 원년(717년)에 제9차 견당사를 파견할 당시에 학생의 신분으로 당나라에 들어간 기비 노마키비(吉備眞備)가 당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일본으로 귀국한 일을 기록하였다. 기비 노마키비는 오랜 당나라 생활을 마치고 덴표 6년(734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기비 노마키비는 기비(吉備) 지방의 유력한 호족 가문 출신으로, 당나라에 들어간 이후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비롯하여 천문학과

20) 측영철척(測影鐵尺)은 ‘해그림자[日影]를 측정하는 쇠 자’라는 말로, 해시계이다.
 21) 『續日本紀』天平 7年 4月 辛亥: “入唐留學生從八位下道朝臣眞備, 獻唐禮一百卅卷 太衍曆經一卷, 太衍曆立成十二卷. 測影鐵尺一枚. 銅律管一部. 鐵如方響寫律管聲十二條. 樂書要錄十卷. 絃纏漆角弓一張. 馬上飲水漆角弓一張. 露面漆四節角弓一張. 射甲箭廿隻. 平射箭十隻.”
 22) 『續日本紀』天平 7年 5月 庚申: “天皇御北松林覽騎射. 入唐廻使及唐人, 奏唐國新羅樂弄槍.”
 23) 『日本書紀』天平 8年 11月 戊寅條에 “페르시아 사람 이밀예(李密翳)”라는 기록이 있다.
 24) 『續日本紀』天平 8年 8月 庚午條: “入唐副使從五位上中臣朝臣名代等, 率入唐人三人波斯人一人, 拜朝.”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당나라의 선진문화를 연구하였다고 전한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서적과 물품을 가지고 갔다. 그 가운데는 『악서요록(樂書要錄)』을 비롯한 악무와 관련된 물품도 있었는데, 그것을 쇼무 천황에게 헌상하였다.

『악서요록』은 당나라 무후(武侯) 때에 편찬한 악률(樂律) 관련 전문서이다. 『악서요록』의 정확한 편찬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구시(久視) 원년(700년)경에 무후의 칙명으로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당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 무후는 집권 초기에 학사들을 불러 모아 여러 가지 서적을 편찬하였는데, 그중에는 『악서요록』 10권도 포함되어 있었다.²⁵⁾ 이 일은 『신당서』 「예문지(藝文志)」에도 기록되어 있다. 『악서요록』은 중국에서는 일찍이 모습을 감추고 전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기비 노마키비가 전한 것이 후세까지 전해졌다.²⁶⁾ 율관은 글자 그대로 조율을 위하여 만든 원통형 관인데, 열두 개의 가는 관을 십이률(十二律)에 맞추어 한 벌로 사용하였다. 미나미타니 미호(南谷美保 2006)에 따르면, 당시 기비 노마키비가 들여온 『악서요록』은 일본의 예악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또 율관 등은 일본의 아악 발전과 관계가 밀접하다(南谷美保 2006, 1). 당시 『악서요록』과 율관 등은 최신의 악률서적이자 악무 관련 물품이었다.

두 번째 기사와 세 번째 기사는 덴표 5년(733년)에 파견한 제10차 견당사의 귀국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에는 다지히노 히로나리(多治比廣成)가 대사로, 나카토미노아소미 나시로(中臣朝臣名代)가 부사로 임명되었고, 또 헤구리노 히로나리(平群廣成)가 판관을 맡았으며, 오토모노 고마로(大伴古麻呂)가 유학생 신분으로 함께 파견되었다. 이들은 조난과 난파 때문에 덴표 6년부터 덴표 11년(739년)까지 나뉘어 귀국하였다. 두 번째 기사는 쇼

25) 『舊唐書』 「則天皇后紀」: “太后嘗召文學之士周思茂·范履冰·韋敬業, 令撰玄覽及古今內範各百卷, 青宮紀要·少陽政範各三十卷, 維城典訓·鳳樓新誠·孝子列女傳各二十卷, 內範要略·樂書要錄各十卷, 百僚新誠·兆人本業各五卷, 臣範兩卷, 垂拱格四卷, 并文集一百二十卷, 藏於秘閣.”

26) 『악서요록』은 중국에서는 일찍이 모습을 감추었는데, 남송 학자 왕응린(王應麟, 1223 - 1296)이 편찬한 『옥해(玉海)』에 “무후의 『악서요록』은 악률의 서적이다(武后樂書要錄, 則樂律之書也.)”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는 이 책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 일본에 주재하던 청나라의 한 외교관이 『악서요록』 가운데 제5권, 제6권, 제7권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일부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덕택이다.

무 천황이 제10차 견당사 일행 가운데 먼저 귀국한 다지히노 히로나리 등과 함께 북쪽의 송림에 나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을 관람하였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또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절들과 함께 일본에 온 당나라 사람이 당악을 연행하였음을 밝혔다. 세 번째 기사는 덴표 8년(736년) 8월의 기사로, 조난을 당하여 뒤늦게 일본에 도착한 나카토미노아소미 나시가 동행한 당나라 사람, 페르시아 사람과 함께 배례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나미타니 미호(2006)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동행한 당나라 사람 3인 가운데는 일본에서 도가쿠가 정착하고 발전함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황보동조(皇甫東朝)와 황보승녀(皇甫昇女)가 포함되어 있었다(南谷美保 2006, 5). 『일본서기』 덴표호지(天平宝字) 2년(766년) 10월 기사에 황보동조가 사리회(舍利會)에서 당악을 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는 본래 악인(樂人)으로 일본에 건너 온 이래로 여러 가지 행사에서 당악을 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일본에서는 당나라에서 건너온 그에게 일찌감치 관위를 내려주어 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그가 일본으로 건너간 덴표 8년 11월의 『일본서기』 기사에는 “당나라 사람 황보동조와 페르시아 사람 이밀예에게 차등을 두어 관위(官位)를 내렸다.”라고 기록하였다.

아무튼 이런 기록을 통하여 가장 규모가 큰 인적 교류라고 할 수 있는 견당사 파견을 통하여 첫째, 당나라 현지의 악무를 접하고 둘째, 당나라의 악서와 악무 관련 물품을 직수입하였으며 셋째, 당나라 현지 악인을 일본으로 건너오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함께 일본으로 건너온 당나라 악인은 일본에서 당악을 연주하여 일본인에게 당악을 전수하였다. 견당사를 파견한 가장 큰 목적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아울러 선진문물의 수입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 학생과 유학생을 포함한 견당사 일행은 그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컸는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배편을 이용한 여정은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험난한 것이었다. 앞서 거론한 덴표 5년에 파견한 제10차 견당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출항한 4척의 배 가운데 2척이 조난을 당하였고, 그 가운데 1척은 일본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당사를 꾸준히 파견한 것은 당시 선

진문물 수입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회생과 노력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악을 일본의 도가쿠로 정착시킨 것이다. 『속일본기』 다이호(大宝) 2년조의 기록에 이르면, 처음으로 악곡의 자세한 이름이 나온다.

“서각(西閣)에서 군신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고조라쿠(五常樂)>와 <다이헤이라쿠(太平樂)>를 연주하여 한껏 즐기고 과하였다.”²⁷⁾

<고조라쿠>는 당나라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이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오상(五常)을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오성(五聲)에 실어서 만든 것이라고 전한다. 오상의 ‘상’은 사람이 언제나 실천해야 하는 도덕의 의미가 있다(雅樂講究會 1931, 39). <다이헤이라쿠>는 달리 <부쇼하진라쿠(武將破陣樂)>, <부쇼다이헤이라쿠(武昌太平樂)>라고도 부른다. 『교훈초(敎訓抄)』에서 기록한 것에 따르면, <다이헤이라쿠>는 우리나라의 <항장무(項莊舞)>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이 홍문(鴻門)에서 가진 연회에서 항백(項伯)이 펼친 검무(劍舞)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 『속일본기』 쇼무 천황 덴표 3년(731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가가쿠료(雅樂寮)의 잡악생(雜樂生) 인원을 정하였는데, 다이도가쿠(大唐樂) 39인, 구다라가쿠(百濟樂) 26인, 고마가쿠(高麗樂) 8인, 시라기가쿠(新羅樂) 4인, 도라가쿠(度羅樂) 62인, 제현무(諸縣舞) 8인, 쓰쿠시노마이(筑紫舞)²⁸⁾ 20인이었다. 다이도가쿠생(大唐樂生)은 중국 출신이든 번국(蕃國) 출신이든 가리지 않고 교습을 감당해내는 자를 선발하였고, 백제·고구려·신라 등지의 악생은 모두 해당 번 출신으로 교습을 감당해내는 자를 선발하였다. 다만 도라가쿠·제현무·쓰쿠시노마이의 교습생은 갓코(樂戶)에서 선발하였다.”²⁹⁾

27) 『續日本記』 大宝 2年: “宴君臣於西閣, 奏五常樂泰平樂, 極歡而罷.”

28) 쓰쿠시노마이(筑紫舞)는 규슈(九州) 지방에서 내려오는 일본 고유의 가무이다.

29) 『續日本記』 天平 3年: “定雅樂寮雜樂生員, 大唐樂卅九人, 百濟樂廿六人, 高麗樂八

인용문에 나오는 가가쿠료는 일본 최초의 공식적인 악무기관이다. 다이호(大宝) 원년(701년)에 처음 설치되어 문무의 악곡, 정무 그리고 잡악을 관장하였고, 또 곡과를 익혔는데, 제기와 절기 등에 가가쿠 반주에 맞추어 가무를 연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위 기록에 따르면, 가가쿠료에서 익히고 연주한 악에는 일본 고유의 악(樂)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삼국악과 중국의 도가쿠 등 외래악도 포함되었으며, 특히 중국에서 들어온 다이도가쿠(大唐樂)가 비중이 컸다.

Ⅲ. 당악(唐樂)에서 도가쿠(唐樂)로의 문화변용 양상

『교훈초』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보면, 건당사 일행이 일본에 전한 당악으로는 <파진악(破陣樂)>,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 <춘정악(春庭樂)>, <유화원(柳花苑)>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문헌을 보면, 이 밖에도 상당수의 악곡이 더 있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전승되지 않고 단절되었거나, 여악(女樂)에서 남악(男樂)으로 바뀌었거나 하는 등 전승의 과정에서 단절되거나 굴절을 겪은 악곡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또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부가쿠(舞樂) 이외에 관현으로 연주되는 연주곡도 있다. 중국의 자료에서 근거가 확인되는 악곡명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국과 일본의 공통 악곡명

순번	악곡명	무악	관현	전승	비고
1	단란선(團亂旋)	■ ■			
2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	■ ■			
3	능왕(陵王)	■ ■		■ ■	
4	농창(弄槍)	■ ■			

人, 新羅樂四人, 度羅樂六十二人, 諸縣舞八人, 筑紫舞廿人. 其大唐樂生不言夏蕃, 取堪教習者, 百濟高麗新羅等樂生並取當蕃堪學者, 但度羅樂諸縣筑紫舞生並取樂戶.”

5	감주(涪州)	■ ■		■ ■	
6	경운악(慶雲樂)		■ ■	■ ■	춤은 전하지 않음
7	황장(皇鞞)	■ ■		■ ■	
8	부남(扶南)		■ ■	■ ■	
9	태평악(太平樂)	■ ■		■ ■	
10	타구락(打毬樂)	■ ■		■ ■	
11	오상악(五常樂)	■ ■		■ ■	
12	발두(拔頭)	■ ■		■ ■	
13	유화원(柳花苑)		■ ■	■ ■	춤은 전하지 않음
14	춘정악(春庭樂)	■ ■		■ ■	여악에서 남악으로 바뀜
15	적백도리화(赤白桃李花)	■ ■		■ ■	여악에서 남악으로 바뀜. 춤은 전하지 않아 <中央樂>의 춤을 사용함
16	장생악(長生樂)		■ ■	■ ■	
17	범용주(汎龍舟)		■ ■	■ ■	중국에서는 여무(女舞)였으나 일본에서는 동무(童舞)로 연행함. 춤은 전하지 않음
18	소합향(蘇合香)	■ ■		■ ■	
19	소막자(蘇莫者)	■ ■		■ ■	
20	채상로(採桑老)	■ ■			
21	하진(賀殿)	■ ■		■ ■	

1. <경운악(景雲樂)>과 <교운라쿠(慶雲樂)>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의 아악(雅樂)인 가가쿠는 중국의 아악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전래된 연향악(宴饗樂)이 정착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도가쿠에 속한 세부 악곡들의 경우는 대개 중국의 연향악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경운악>과 <교운라쿠>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경운악(景雲樂)>³⁰⁾은 연악(燕樂)에 속한 악곡 가운데 하나

30) 중국에서는 <경운악(景雲樂)>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교운라쿠(慶雲樂)>라고 하여 글자가 서로 다르다. 이 또한 문화변용의 한 양상인데, 그 까닭에 대해서는

였다. 연악은 당나라 때에 구부기(九部伎)와 십부기(十部伎)에 속한 부기의 하나였는데,³¹⁾ <경운악>·<파진악(破陣樂)>·<경선악(慶善樂)>·<승천악(承天樂)>의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경운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고종(高宗)이 즉위한 뒤에 상서로운 구름이 나타나고 황하(黃河)가 맑아지는 일이 있었다. 장문수(張文收)는 옛 사례에 따라 <경운하청가(景雲河清歌)>를 지어 ‘연악(燕樂)’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 무자(舞者)는 20인이다. 4부로 나뉘는데 첫째, <경운무> 둘째, <경선무> 셋째, <파진무> 넷째, <승천무>이다.³²⁾

“[정관(貞觀)] 14년, 상서로운 구름이 나타나고 황하가 맑아지는 일이 일어났다. 장문수는 <주안(珠雁)>과 <천마(天馬)> 등의 옛 사례에 따라 <경운하청가>를 지어 ‘연악(燕樂)’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악기로 연주하고 모든 음악 가운데 으뜸으로 삼았는데, 설날 조회에서 가장 먼저 연주한 것이 이것이었다.”³³⁾

“<경운악>은 무자는 8인이며, 오색 운관(雲冠), 비단 두루마기, 오색 바지, 금동띠[金銅帶]를 착용한다.”³⁴⁾

뒤에서 다룬다.

- 31) 『통전(通典)』 권146에는 “무덕(武德) 초년에 고쳐 만들 겨를이 없어서 매번 향연에 수나라의 옛 제도를 따라서 구부악을 연주하였다. 첫째, 연악(宴樂), 둘째, 청상(淸商), 셋째, 서량(西涼), 넷째, 부남(扶南), 다섯째, 고려(高麗), 여섯째, 구자(龜茲), 일곱째, 안국(安國), 여덟째, 소록(疏勒), 아홉째, 강국(康國)이다. 정관(貞觀) 16년 11월에 이르러, 백료(百寮)들에게 연회를 열며 십부악을 연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창(高昌)을 정벌하고, 그곳의 음악을 거두어 태상시(太常寺)에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십부기로 늘어났고, 나중에 입부기(立部伎)와 좌부기(坐部伎)로 나누었다(武德初, 未暇改作, 每宴享, 因隋舊制, 奏九部樂. 一宴樂, 二淸商, 三西涼, 四扶南, 五高麗, 六龜茲, 七安國, 八疏勒, 九康國. 至貞觀十六年十一月, 宴百寮, 奏十部. 先是, 伐高昌, 收其樂, 付太常. 至是增爲十部伎, 其後分爲立坐二部.)”라고 하였다.
- 32) 『新唐書』 「禮樂志」: “高宗即位, 景雲見, 河水淸, 張文收采古諠爲景雲河淸歌, 亦名燕樂. …… 舞者二十人. 分四部, 一景雲舞, 二慶善舞, 三破陣舞, 四承天舞.”
- 33) 『舊唐書』 「音樂志」: “十四年, 有景雲見, 河水淸. 張文收采古硃雁, 天馬之義, 制景雲河淸歌, 名曰宴樂. 奏之管絃, 爲諸樂之首, 元會第一奏者是也.”

이런 기록으로 보면 <경운악>은 장문수가 <경운하청가>를 짓고, 다시 여기에 배악(配樂)하고 춤을 더하여 완성한 것이다. 장문수는 음악에 정통하여 젊은 나이에 협률랑(協律郎)이 되고, 나중에는 태상승(太常丞)이 되었으며, 또 악서(樂書) 10여 편을 저술한 음악 전문가였다. 『구당서』 등에 따르면, 태종은 조효손(祖孝孫)이 세상을 떠나자 장문수를 협률랑에 임명하고 『주례(周禮)』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십이화지악(十二和之樂)>에 악기를 배합하게 하여 마침내 대당아악(大唐雅樂)의 체도를 정하였다. 장문수가 만든 <경운악>은 통치자를 가송하고 제국의 번영을 축원하는 내용을 담은 악무였는데, 후대에 <파진악>·<경선악>·<승천악>은 모두 망실 되었으나 <경운악>은 당나라 말기까지도 연행되었다(남종진 2013, 195).

중국에서 <경운악>은 연악의 하나로 연행된 악무였던 반면 일본의 <교운라쿠>는 관현악곡이다. 『대일본사』에는 <교운라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당서』를 살펴보면, <상원무(上元舞)>는 고종이 만든 것인데, 그 가운데 <경운곡(慶雲曲)>³⁵⁾이 있다. 『통전』에도 연악(燕樂)에는 <경운무(景雲舞)>가 있다고 하였다. 『교훈초(教訓抄)』와 『체원초(體源抄)』에는 나란히 문무제(文武帝) 교운(慶雲) 연간에 이 악곡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름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경운(慶雲)’이라는 글자를 좇아서 말한 것 같은데 수용하지 않는다.”³⁶⁾

이 기록은 『당서』와 『통전』에서 당나라 연악의 하나인 <경운무>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교훈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교운라쿠(慶雲樂)> …… 어떤 기록에서는 대국(大國)의 범도에서는 식사를 할 때에 이 곡을 연주한다고 말한다. 대당(大唐)에는 음식

34) 『舊唐書』「音樂志」: “景雲樂, 舞八人, 五色雲冠, 錦袍, 五色袴, 金銅帶.”

35) <慶雲曲>의 ‘慶’은 ‘景’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36) 『大日本史』「禮樂」: “按唐書, 上元舞高宗所作, 其中有慶雲之曲. 通典, 燕樂有景雲舞. 教訓抄·體源抄並云; 文武帝慶雲中傳此樂故名. 恐就慶雲字爲說者, 不取.”

을 탐하는 두 도깨비가 있는데, 이름이 식귀(食鬼)와 음귀(飲鬼)이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걱정하고 괴로워하였지만 <경운악>의 음악을 들으면 도깨비들이 70리를 달아났다고 한다. <경운악>은 본래 이름이 <양귀악(兩鬼樂)>이다. 일본에는 교운(慶雲) 연간에 전해져 이름을 고쳐 <교운라쿠>가 되었다.”³⁷⁾

위 기록에 따르면, <교운라쿠>는 중국에서 식사 때에 결신(乞神)을 쫓기 위하여 연주하던 것으로, 본래 이름은 ‘두 결신의 악무’라는 의미의 <양귀악>이었는데, 교운 연간(704-708년)에 일본에 전해지면서 이름을 고쳐 <교운라쿠>가 되었다. 중국의 문헌기록에는 <양귀악>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양귀악>이 어떤 모습의 악곡이었으며 또 실제로 연행되던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한편 『체원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교운라쿠>는 신악(新樂)이자 중곡(中曲)이며 춤은 없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교운라쿠>는 대개 기악곡으로 연주되고 있어서 이런 기록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교운 연간에 당나라에서 처음 전해지던 무렵에 어떤 악곡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온 것인지 고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춤을 동반한 연악 가운데 하나인 <경운무>가 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2. <발두(撥頭)>와 <바토(拔頭)>

중국에서 <발두(撥頭)>는 <발두(鉢頭)> 또는 <발두(拔頭)>라고도 하는데, 민간의 가무희(歌舞戲)에 속하는 것이다. 역사서에는 “가무희에는 <대면(大面)>·<발두>·<답요랑(踏搖娘)>·<굴뢰자(窟礪子)> 등의 놀이가 있다.”³⁸⁾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대면>·<발두>·<답요랑>은 노래와 춤으로 이야기를 연출하는 것이고, <굴쇠뢰자>는 꼭두각시놀음이다. 특히 <발두>는 <답요랑>과 함께 당나라 때에 성행한 대표적인 가무희였다. 『

37) 『教訓抄』「六平調」: “慶雲樂 …… 或記云; 大國ノ法, 食事ノ時奏此曲. 於大唐食望有二鬼, 名食鬼·云飲鬼. 繫念人食惱人, 而聞此樂音曲, 彼鬼神去七十里云々. 此樂本名謂兩鬼樂. 我朝ニテ慶雲年中渡テ, 改名, 付慶雲樂.”

38) 『舊唐書』「音樂志」: “歌舞戲, 有大面撥頭踏搖娘窟石壘子等戲.”

문헌통고(文獻通考)』와 『악부잡록(樂府雜錄)』에는 <발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서역(西域)에서 나왔다. 호인(胡人)이 맹수에게 잡아먹히자, 그 아들이 맹수를 찾아 죽이고, 이 춤을 만들어 그 일을 담아냈다.”³⁹⁾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해를 입자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시신을 찾았다. 산에는 구비가 여덟이나 되었기 때문에 곡조가 팔첩(八疊)이다. 연회를 펼치는 사람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素服)을 입고 울부짖는 표정을 짓는데, 상(喪)을 당한 모습이었을 것이다.”⁴⁰⁾

<발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역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맹수에게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비통한 모습을 춤으로 연출한 것이기 때문에 연회자는 소복을 입고 울부짖는 표정으로 연행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무용사가 왕커펀(王克芬 1987, 67-68)은 당나라 시인 장호(張祐)가 <용아발두(容兒鉢頭)>라는 시에서 <발두>를 묘사한 것을 근거로,⁴¹⁾ <발두>는 다소 해학적 흥취가 있다고 평하였는데, 이는 <발두>가 시종 애통한 정조만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한편 일본에서 전하는 <바토(拔頭)>는 린유가쿠(林邑樂)의 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도 기술하였듯이, 이것은 천축(天竺)에서 임읍(林邑)으로 전해진 것이 다시 당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다(小野亮哉 1998, 221).

그러나 모티브에 있어서는 중국의 <발두>와 완전하게 일치하는데, 호인(胡人)이 맹수에게 물려 죽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맹수를 죽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춤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교훈초』에

39) 『文獻通考』「樂考」: “撥頭, 出西域. 胡人爲猛獸所噬, 其子求獸殺之, 爲此舞以象也.”

40) 『樂府雜錄』「鼓架部」: 鉢頭, 昔有人父爲虎所傷, 遂上山尋其父尸. 山有八折, 故曲八疊. 戲者被髮素衣, 面作啼, 蓋遭喪之狀也.

41) 『全唐詩』卷511에 전하는 張祐의 <容兒發頭>에는 “爭走金車叱鞅牛, 笑聲唯說是千秋. 兩邊角子羊門裏, 猶學容兒弄發頭.”라고 하였다.

는 다음과 같은 다른 기록이 나온다.

“이 곡은 덴치쿠가쿠(天竺樂)로 바라문(波羅門)이 수나라에 진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춤을 만든 사람은 자세하지 않다. 일설에는 사문 불철(佛哲)이 전하여 도쇼다이(唐招提寺)에 두었다고 한다. 당나라 후비가 질투를 하였다고 한다. [미상] 오래 전부터 전하는 이야기로는 당나라의 후비가 심하게 질투를 하여 악귀가 되었는데, 황제가 누각에 가두어두라고 명하였으나, 부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본떠 이 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든 사람은 알 수 없다.”⁴²⁾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아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시기심이 많은 당나라의 후비가 심한 질투 끝에 악귀가 되자 사람들은 황제의 분부에 따라 후비를 가두었지만 그것을 부수고 나와 춤을 추었고, 그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이 <바토>라는 설명이다. 『대일본사』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악부잡록』에는 ‘발(拔)’을 ‘발(鉢)’로 적었는데,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들이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시신을 찾았다. 산에는 구비가 여덟이나 되었기 때문에 곡조가 팔첩(八疊)이다. 연회를 하는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가면은 울부짖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이 때문이다.’”⁴³⁾

『대일본사』에서 기록한 내용은 『악부잡록』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지금 전하는 <바토>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붉은 가면을 쓰고, 손에는 짧은 봉을 들고 춤을 춘다. 하지만 소복은 입지 않으며 도가쿠의 전형적인 붉은색 의상을 착용한다. 가와타케 시게토시(2001, 128)에 따르면, 무자(舞者)가 손에 드는 봉은 맹수와 싸울 때 사용한 칼이나 창 따위

42) 『教訓抄』: “『拔頭』…… 又髮頭…… 此曲天竺ノ樂ナリ, 波羅門傳來隋一也. 舞作者非詳之. 一說云; 沙門佛哲伝之, 置唐招提寺云々. 唐后嫉妬貞云々. [未詳] 古老語云; 唐ノ后物ネタミヲシ給テ, 鬼トナレリケルヲ, 以宣旨樓ニ籠ラレタリケルガ, 破出給テ舞玉ヲ姿ヲ摸トシテ作此舞, 而無作者.”

43) 『大日本史』 『札樂』: “按樂府雜錄, 拔作鉢. 曰: 其子上山求父屍. 山有八折, 故曲八疊. 戲者被髮素衣面作啼, 卽是也.”

의 무기를 상징한다(가와타케 시게토시 2001, 128). 맹수를 제압한 용감한 주인공을 묘사하기 때문에 춤사위가 아주 크고 역동적이지만 같은 동작이 거듭되기 때문에 단조로운 느낌이다. 본래는 4인무였으나 지금은 독무(獨舞)로 연행된다. <바토>는 <교운라쿠>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고, 또 춤을 출 때 착용하는 가면 역시 그 이미지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기록에는 소복을 착용한다고 하였으나 일본의 기록에는 붉은 색 의상을 착용한다고 한 점은 서로 다르다. 의상이 언제부터 흰색에서 붉은 색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초기에 민간 가무회이던 것이 본격적인 무대 예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져 연행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3. <감주(甘州)>와 <간슈(汧州)>

<감주>는 당나라 때에 연행되던 연무(軟舞)의 하나이다. 연무는 춤사위가 힘차고 템포가 빠른 건무(健舞)와 상대하여 완약하고 서정적인 악곡을 가리킨다. 『악부잡록』에 따르면, 당나라 때에는 <감주>를 비롯하여 <양주(涼州)>·<녹요(綠腰)>·<소합향(蘇合香)>·<굴자(屈柘)>·<단란선(團圓旋)> 등의 연무곡이 있었다.⁴⁴⁾ 이 가운데 <양주>와 <감주>는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양주는 지금의 중국 간쑤성(甘肅省) 우웨이(武威)이고, 감주는 간쑤성 장예(張掖)이다.

『신당서』에는 <감주>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개원(開元) 24년(736년)에 호부(胡部)를 당상(堂上)에 올리고 천보(天寶, 742-756년) 때의 악곡을 모두 변방의 지명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양주(涼州)>·<이주(伊州)>·<감주(甘州)> 같은 것이다. 나중에 다시 조령을 내려 도조(道調)와 법곡(法曲)을 호부의 신성(新聲)과 합치게 하였다.”⁴⁵⁾

44) 『樂府雜錄』 「舞工」: “軟舞曲有涼州·綠腰·蘇合香·屈柘·團圓旋·甘州等.”

45) 『新唐書』 「音樂志」: “開元二十四年, 升胡部於堂上. 而天寶樂曲, 皆以邊地名, 若涼州·伊州·甘州之類. 後又詔道調, 法曲與胡部新聲合作.”

“천보(天寶) 이후의 곡조들은 대개 변방의 지역으로 이름을 삼았는데, 예컨대 <이주(伊州)>·<감주(甘州)>·<양주(涼州)> 같은 것이다.”⁴⁶⁾

남송의 학자 홍매(洪邁)도 『용재수필(容齋隨筆)』에서 “지금 악부(樂府)에서 전하는 대곡(大曲)은 모두 당나라에서 나왔고, 고을[州]로 이름을 삼은 것은 다섯 가지인데, 이주(伊州)·양주(涼州)·희주(熙州)·석주(石州)·위주(渭州)이다.”⁴⁷⁾라고 하였다.

실크로드의 요충에 자리 잡은 감주는 중원과 서역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던 곳으로, 서역의 악무가 감주의 악무와 어우러져 새로운 악무가 만들어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예컨대 감주의 <운대곡(輪臺曲)>은 운대(輪臺)⁴⁸⁾의 악무가 감주의 악무와 결합한 전형이다.

감주와 관련된 악곡으로는 <감주대곡(甘州大曲)>·<감주자(甘州子)>·<조감주(早甘州)> 등이 있다. <감주대곡>은 당나라 교방(敎坊)의 46가지 대곡(大曲) 가운데 일곱 번째 악곡이다. <감주곡>이 처음 만들어져 널리 유행하자 음률에 정통하던 하서 절도사(河西節度使) 개가운(蓋嘉運)이 현종에게 이 곡을 바쳤는데, 현종은 크게 칭찬하고 교방(敎坊)에 넣었다고 전한다. 이 <감주대곡>은 당나라 중기에 일본에 전해졌는데, 일본에서는 <간슈라쿠(甘州樂)>라고 부른다. 『대일본사』에 따르면, <간슈라쿠>는 일본에서 4명 혹은 6명이 연행하였으며, 무자는 권영모(卷纒帽)⁴⁹⁾를 쓰고 장포(長袍)를 입었으며 소매는 걷지 않았다. 일본의 『인지요록(仁智要錄)』에는 『장추경횡적보(長秋卿橫笛譜)』에 실린 <간슈라쿠>의 노랫말이 기록되어 전하는데,⁵⁰⁾ 『전당시속습(全唐詩續拾)』 권56에도 전제되어 있다. 무자의 복식과 <간슈라쿠>의 노랫말을 통하여 <감주대곡>은 감주의 토속 악무가 서역의 악무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張中式 2002). <감주자(甘州子)>는 잡곡(雜曲)이다. 당나라 때에 나온 『교방기(敎坊記)』

46) 『新唐書』「五行志」: “天寶後各曲, 多以邊地爲名, 如伊州·甘州·涼州等.”

47) 『容齋隨筆』 卷14: “今樂府所傳大曲, 皆出於唐, 而以州名者五: 伊涼熙石渭也.”

48) 운대(輪臺)는 지금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 일대이다.

49) 권영모(卷纒帽)는 무사가 착용하는 관의 일종이다.

50) 『仁智要錄』: “燕路霸山遠, 胡關易水寒. 茫茫風藻動, 冷冷夕陽閑. 殘月蘆江白, 老花菊岸丹. 竹驚暖露冷, 落桑寒颼闌.”

에 나열된 잡곡은 모두 278곡인데, <감주자>라는 곡명은 240번째로, <감주대곡>에 비하면 ‘소곡(小曲)’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조감주(早甘州)>가 있는데, 이는 당나라 때에 일본에 전해진 감주의 가곡(歌曲)으로, 그 곡보(曲譜)는 일본 황실에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기록만으로는 여전히 <감주>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알기에는 부족하다.

중국의 사정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간슈>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데, 일본의 『교훈초』에 실린 <간슈>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당나라 현종이 손수 지었다. 천보(天寶) 이후에는 대개 변방의 지역으로 곡의 이름을 삼았는데, <간슈(涇州)>와 <료슈(涼州)>가 그런 것이다. 또 <호선무(胡旋舞)>가 있는데 조천산(照千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한다[칙령에 따랐다]. 간슈(涇州)는 나라 이름이다. 그 나라에는 바다가 있고, 대나무가 많은데[감죽이라고 한다], 그 대나무는 뿌리 주변에 독사·살무사·독충이 많아서 벨 수가 없었다. 독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나] 배에 올라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대나무를 베면 독충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였다. 금시조(金翅鳥)의 울음소리를 닮아서 독충들이 두려워하여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였다. 그 순간에 대나무를 베어 배에 실었다고 한다.”⁵¹⁾

이 기록에 따르면, <간슈>는 지명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는 것이 중국의 기록과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의 자료와는 달리 당나라 현종이 직접 지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흥미로운 유래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 점이 독특하다. 독충에게 상해를 많이 입던 감주 지역 사람들이 이 곡을 만들어 연주한 데서 곡이 유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51) 『教訓抄』「涇州」: “是ハ唐玄宗皇帝ノ御作也。天寶後, 多以邊地名曲, 涇州涼洲是ナリ。又有胡旋舞, 而モ照千山ト云者作之云。[依勅也。] 涇州ハ國名也。彼國ニ海アリ, 竹多クオヒタリ, [甘竹ト云。] 件ノ竹ノ根ゴトニ, 毒蛇毒虻毒虫多ミチテ, 切ウルニアタハズ。毒虫ノタメニ人多ク死ス, [而]奏此曲乘船來テ此竹ヲ切レバ, 彼虫人ヲ不害。金翅鳥ノ音ニ似ユヘニ, 毒虫ヲソレヲナシテ, 人ヲ害センノ心ナシ。此時ニ, 此竹ヲ船ニ切入テトルト申[タリ]。”

한편 중국의 기록에서는 “감주는 우조(羽調)의 곡이다.”⁵²⁾라고 하였다. 우조는 연악(燕樂) 28조(調)의 하나로, 궁조(宮調)·상조(商調)·각조(角調)·치조(徵調)와 나란히 오음(五音) 가운데 하나이다. 옛사람들은 “우(羽)는 물[水]에 해당하며, 사물의 형상이다.”라고 하였는데, 물에 해당하므로 우조는 대개 소리가 울림이 있고 비장하고 격렬하다. 우조가 울림이 있고 비장하고 격렬하다는 것은, <간슈>의 소리는 “금시조의 울음소리를 닮아서 독충이 두려워하였다.”고 한 『교훈초』의 기록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금시조는 가루라(迦樓羅)라고도 하는데,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새와 비슷하고, 몸통은 사람을 닮았으며, 날개는 금빛에, 머리에는 여의주(如意珠)가 박혀 있고, 입으로는 화염을 내뿜는다는 신조(神鳥)이다. 따라서 그 울음소리는 대단히 우렁찼을 것이다. 이것은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금시조의 이미지와 중국 음악에서 우조가 갖는 이미지를 절묘하게 크로스오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감주>(<간슈>)는 중국과 일본의 자료 모두에서 그것이 지명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자료에서는 <감주>에 대한 자세한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일본의 자료에서는 <간슈>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 일본에서는 지금도 <간슈>가 전하고 있는데 4인무 내지 6인무의 형식으로 연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전해진 <경운악>·<발두>·<감주>는 일본에서 <교운라쿠>·<바토>·<간슈>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춤을 동반한 무악 <경운악>을 수용한 <교운라쿠>는 기악곡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발두>를 수용한 <바토>는 그 발생 모티브를 안정적으로 계승하였다. <감주>는 중국의 기록이 미비하여 <간슈>와의 상관성을 자세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 전하는 문헌기록과 도상 자료를 비롯하여 오늘날 연행되는 악곡을 통하여 <간슈>는 완전하게 ‘일본화’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王克芬 1987, 49).

52) 『樂府詩集』 『近代曲辭』: “樂苑曰: 甘州, 羽調曲也.”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악무의 전파와 수용 양상에 대하여 당악의 몇 가지 악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당악은 건당사를 통하여 일본으로 전해졌고, 일본은 당시의 시대적 필요에 따라 전래된 중국의 악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도가쿠와 고마가쿠라고 하는 부가쿠의 형태를 완성하게 되었다. 지금도 100여 개에 이르는 도가쿠의 악곡이 전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경운악>과 일본의 <교운라쿠>, <발두>와 <바토>, <감주>와 <간슈>를 서로 비교하여, 이것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하고 또 변용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경운악>은 본래 춤을 동반한 악무였으나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에는 춤이 없는 기악곡인 <교운라쿠>가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발두>는 본래 서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아들의 이야기라는 소재에서부터, 연행자의 가면과 표정, 연행의 분위기까지 중국과 일본의 기록이 일치한다. 하지만 연행자의 의상은 중국의 <발두>에서는 소복을 착용하지만 일본의 <바투>에서는 도가쿠의 전형적인 붉은 색 옷을 착용하는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다른 두드러진 굴절이나 변용은 없이 일본에 정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중국의 연무(軟舞)인 <감주>는 악곡의 이름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그 면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에서 전하는 <간슈>는 일본에 전래된 이후에 본래의 연무와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감주>는 일본에 전해져 굴절되고 변형되면서 완전히 토착화한 것으로 보인다.

먼 옛날에 순풍을 기다리는 범선에 몸을 싣고 멀리 떨어진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무형의 문화를 전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다. 진(陳)나라 후주(後主)가 지은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를 일본에 전한 무생(舞生)이 중도에 춤사위를 잊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배워왔다는 일화는 동아시아 고대 문화메신저의 지난한 역정을 웅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교류와 전파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 대하여

마스 겐지로(栢源次郎)는 풍량이 아무리 거세고 시설이 열악하더라도, 신앙이나 예도(禮度)에 대한 인간의 집념이 무척 강하였기 때문에 음악이나 무용이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가와타케 시게토시 2002, 98).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악곡들의 전파와 전승 과정을 보면 무형의 악무가 온전히 같은 모습으로 전해지기란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형의 문화가 바다를 건너 먼 타국으로 전해지기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고대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문화의 교류가 꾸준히 있었고, 그 결과로 양국은 ‘당악’과 ‘도가쿠’라는 일란성 쌍둥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래와 수용의 과정에서 굴절과 변형이 있었고 나아가 재창조를 통한 토착화가 있었기에 이 둘은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같으면서도 다른’ 면모를 갖게 되었다. 이런 점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날에도 동아시아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시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교류에 대한 보다 미시적 연구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三國史記』
- 남종진 (2013). “당 태종의 악무 관념과 악무 발전에 대한 공헌.” 『공연문화연구』, 제27집, pp. 179-208.
- 박태규 (2012). “붓카이가쿠(渤海樂) 문헌자료 역주 및 연구과제 상고.” 『민족무용』, 제16호, pp. 183-212.
- 서정록 (2009). “키다란 가면 벗기기 - 한국의 고대 한시 연구를 통한 동아시아 춤의 이해.” 『한림일본학』 제15집, pp. 193-227.
- 이동복 (2010). “古代 아시아 國家의 樂舞 交流 - 韓·中·日을 중심으로-.” 2010 아시아태평양음악 국제학술회의. 부산. 10월, pp. 127-147
- 이병로 (2003). “견당사와 동북아 교류.” 『일본학보』, 제55집, 제2권, pp. 481-494.
- 가와타케 시게토시 (2001). 『일본연극사 (상)』. 이응수 역. 서울: 청우.
- 『舊唐書』; 『文獻通考』; 『新唐書』; 『樂府詩集』; 『樂府雜錄』; 『容齋隨筆』; 『全唐詩』; 『通典』
- 王克芬 (1987). 『中國舞蹈史』[隋唐五代部分].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 張中式 (2002). “八聲甘州小考.” <http://www.gansudaily.com.cn/20021206/163.htm>. (2014년 4월 5일 검색)
- 陳璐一 (2007). “日本遣唐使研究述論.” 鄭州: 鄭州大碩士學位論文.
- 『故事類苑』; 『教訓抄』; 『大日本史』; 『續日本紀』; 『樂家錄』; 『仁智要錄』; 『日本書紀』
- 南谷美保 (2006). “『續日本紀』に見る唐樂演奏の記録と礼樂思想受容について.” 『四天王寺國際仏敎大學紀要』, 第43卷. 大阪: 四天王寺國際仏敎大學, pp. 1-20.
- 小野亮哉 外 (1998). 『雅樂事典』. 東京: 音樂之友社.
- 雅樂講究會 (編) (1931). 『舞樂解説』. 東京: 內宮神樂殿內 雅樂講究會.

| 논문투고일 : 2014년 05월 08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5월 19일 |

| 게재 확정일 : 2014년 06월 12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2 (2014)

**A Case Study on the Adoption of Chinese
Tangyue in Japan as Togaku:
with a focus on the Kyounraku·Bato·Kanshu**

Tae-Qu Par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Jong-Jin Na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paper discussed about the process of Chinese Tangyue's settling into Japanese Togaku once after it was introduced to Japan as an exemplary case of cultural transformation in ancient East Asia.

Around in the 8th century A.D., there was an active cultural exchange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transplantation of Chinese Tangyue into Japanese Togaku is a good example. However, a close examination proves that there was some distortion that resulted in cultural transforma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acceptance between both countries.

The concrete settling process of Chinese Jingyunyue, Botou, Ganzhou into Japanese Kyounraku, Bato, Kanshu respectively is as follows.

First, Chinese Jingyunyue was originally a dance item accompanied by music, but was transformed as a music piece without dance called Kyounraku in Japan.

Second, Botou, a dance/music piece based on an historical episode introduced from far western region from China, shows a conspicuous similarity with Japanese Bato.

Third, it is difficult to trace the specific nature of Chinese Ganzhou

due to the lack of historical records except the title. Meanwhile, Japanese Kanshu was transformed into a totally different form from the original.

- Key words: Culture Transformation, Tangyue(Togaku), Jingyunyue(Kyounraku), Botou(Bato), Ganzhou(Kanshu)